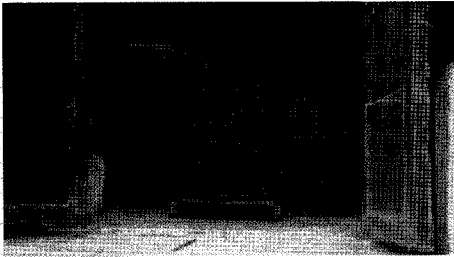


궁중의 화장실과 변기



김 조의원(신분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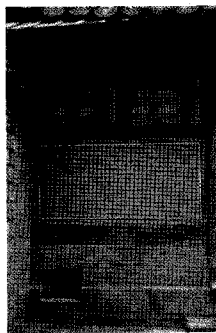
▶경운각 뒷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임금님 화장실의 흔적 (사진1)

궁중의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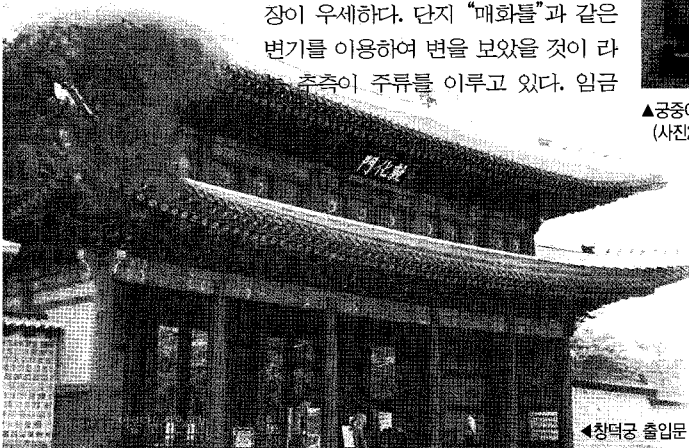
화장실에 관한 일들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되었던 점이 옛 궁중의 화장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궁중에서 사용하던 화장실에 대한 기록이 아직 이렇다 하게 발견된 것이 없는 것 같아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단지 창덕궁 내에 몇 곳 화장실로 쓰였던 장소들이 남아 있으며, 근래 들어 그것을 재현해 놓은 화장실이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창덕궁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더라도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궁중내에 “임금께서 사용하시던 화장실은 별도로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우세하다. 단지 “매화들”과 같은 변기를 이용하여 변을 보았을 것이라 추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

님이 사용한 화장실로 전해지는 유일한 부분이다. 창덕궁 대조전에서 회랑으로 연결된 경운각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진1) 윗편에 마루가 있는데 마루에서 바닥까지는 약70cm의 공간이 있다. 밖에 있는 두문을 열면(현재 열려있는 상태)그 안에 바퀴벌레가 달린 끌개 1대(약30cm X 70cm)가 있다. 그 끌개 위에는 2~3cm높이의 철테가 둥글게 박혀있는데 그 곳마다 변을 담은 그릇을 놓았다가 임금님이 마루 위에서 용변을 보면 밖으로 끌어내는 식으로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배변을 담은 그릇은 현존하고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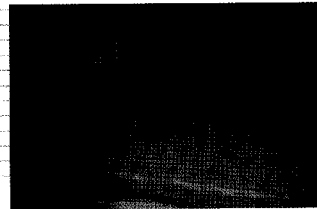
그 외에 대조전 근처 2곳에 또 다른 화장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특이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곳들은 주로 궁 내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었다. 연경당 행랑채 마굿간 근처에 화장실이 한 곳 더 있었는데 연경당 자체가 궁내에서 일반서민들의 생활을 접할 수 있었던 곳이라고 하니 이곳 화장실이야말로 당시 일반서민들이 사용했던 형태의 화장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다. 한편 입구 낙선재 근처에 근래 들어 재현을 해 놓은 궁중 화장



▲궁중에 있는 또다른 모습의 화장실 (사진2)



◀창덕궁 출입문 '동화문'



▲조선시대 일반서민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연경당 내부의 화장실 (사진3)

“

유럽에서의 화장실 역사는 1만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에서 용무를 해결한 것에서 찾고 있다. 기원전 3,000여 년경에 파키스탄의 인더스 강 유역 및 스코틀랜드의 크넛소스 궁전, 통일신라시대 불국사에서 수세식 화장실의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이나 조선시대 궁궐에 화장실이 없다는 기록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편집자)

”

실의 모습이 있기에 돌아보았으나 특징적인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외부는 단청을 새로 하여 기와와 벽돌의 채색이 제법 화려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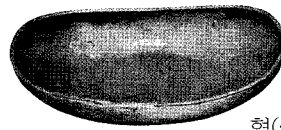
변기류는 창덕궁에서 옮겨와 덕수궁 내 유물 전 시관에 보관중인 “매화틀”과 “매화그릇”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 또한 현존하는 유일한 유물이지만 이렇다할만한 기록이 없이 기구의 모양과 크기 등만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었다.

매화틀

크기는 높이 21.0cm, 폭 39.5cm, 길이 48.3cm의 장방형으로 목재에 천이 덮여있는 형태이다. 윗면은 장방형(長方形)이고, 중앙부에 장방형으로 구멍이 파지고 그 외각부는 엽문(葉紋)주단으로 폭신하게 압혀져 있다.

아래부분 양 옆으로 발판이 설치 되어있고, 장방형의 한쪽 면은 터져있어 그쪽으로 변을 받는 “매화그릇”을 넣고 빨 수 있게 되어있다. 반대편 닫힌쪽 윗부분에는 등받이를 설치할 수 있는 2개의 구멍이 있는데, 규격으로 보아 어린 왕자들

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참고로 국어사전을 인용하자면 “매화틀: 궁중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변기를 말함”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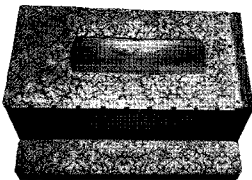
매화그릇

높이 12.0cm, 폭 22.5cm, 길이 49.5cm의 선형(船形)으로 청동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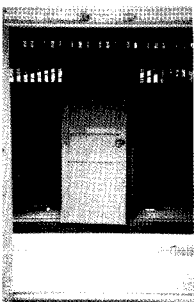
이다. 이것은 크기로 보아 성인용으로 보이며, 부식상태로 보아 현존하는 “매화틀”보다는 훨씬 이전의 것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현존하는 “매화틀”에는 별도의 다른 모양(장방형)의 “매화그릇”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후기

비단 화장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예로부터 남아있는 유물이나 흔적들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온전한 기록들이 없다보니 그저 안타깝기만 하였다. 이제부터라도 우선은 국가가 주도하여 역사를 만들고 복원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욕심을 다시 한번 내어보게 되었다. 美小宮



▲ 창덕궁의 화장실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창덕궁 근무 공무원(조문연氏)과 필자



◀ 낙선제 근처에 새로 재현한 옛궁중의 화장실 내부 (사진4)